

현대패션에 표현된 개더 장식의 미적 특성 연구 -2001년 이후 컬렉션을 중심으로-

윤진아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강사

A Study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Gather Decorations in the Contemporary Fashion -Focusing on the Collections after 2001-

Jin-Ah Yoon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2006. 2. 15. 접수; 3. 16.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focusing on the gather decorations shown in the modern fashion was to review needlework techniques and design features of gather decorations and thereupon, analyz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gather decorations shown in designers' works to examine the gather decoration trend in today's fashion.

First, the decorative features of gather decorations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costumes are shirring, lace and trimming combined or shirring repeated.

Second, in view of sensualism, the gather decorations seem to play a role of enhancing the exposure as a mode of expression, while the indirect exposure or beach is mixed with the materials to widen the range of gather decoration expressions.

Third, in terms of history, the conventional decorative techniques are combined with new techniques and materials to create a fantastic and romantic mood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costumes.

Fourth, in view of rhythms, the wave line of the rim for gather decorations serves to express some vivid effects; on the human body, its monotonous plane repetition will turn into a new expression or a voluminous physical sense of motion.

However, since expressions or meanings of the gather decorations are much diversified, they should not be regarded as simple decoration details. Our modern designers searching for new expression of creases use unique structural for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reative gather decorations. In all, since gather decorations seem to be significant as unique details conducive to a structural pragmatism and aesthetics,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tinue to develop gather decorations.

Key Words: gather decorations(개더 장식), decorative features(장식성), sensualism(관능성), history(역사성), rhythms(율동성)

I. 서론

복식은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적 역할로서 다양화, 개성화에 부응하여 시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감각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가능성과 보편성으로 대표되는 실용적인 목적과 동시에 장식성과 심미성도 만족시켜야 하는 분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급진전된 정보화와 이에 따른 환경과 소비자 의식의 다각적이고 빠른 변화는 패션산업의 고도화 및 정보화를 이루게 하였다. 이에 패션산업은 잦은 트렌드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고감성 문화산업이며 정보산업이라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더욱이 21세기의 패션시장은 극심한 경쟁과 동서 여러 문화권의 혼재 속에 스타일의 차별화가 난제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패션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형적인 측면이 강조된 의상으로 자율성을 넓혀가고 있다. 실용성과 모던함의 강조로 삭막해진 현대인들에게 환상과 낭만을 가져다주는 복식은 지나간 세계에 대한 향수뿐만 아니라 기계화된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도피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복식의 개념이 '입는다'는 것에서 '치장한다'는 것으로 바뀌었고¹⁾, 이는 복식에서 실용적 가치 이외에 상징적 가치 또는 미적 가치가 더욱 중요시 되었으며 복식이 인간의 감정적 측면, 의사전달적 측면을 표현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치장한다'는 개념으로의 변화는 표현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으로 복식착용의 동기가 되었던 장식적 특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²⁾.

이처럼 최근 패션은 로맨틱하고 엘레강스한 장식의 강조로 나타나 세기말부터 최근까지 장식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인간적 온기가 느껴지는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장식 디테일은 쉽게 복제할 수 없는 희귀성을 의미한다.

장식 디테일 중 개더 장식은 그 독창성과 다양함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 여러 가지 기

법으로 응용되어 나타남으로써 개더 장식의 형태적 변화과정과 다양성을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과업이라 사료된다.

개더 장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권은영³⁾, 박희선⁴⁾은 직물 가공에 의한 주름 표현에 관한 연구이고, 이현숙⁵⁾은 주름의 입체적인 조형미를 개괄적으로 살펴 본 연구이며, 이희남⁶⁾은 주름의 입체적인 표면효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이렇듯 개더의 장식기법의 활용이나 전체적인 디자인의 응용에 관한 부분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개더 장식에 초점을 맞추어 개더 장식의 봉제기법, 디자인 특징과 그 경향을 연구하고,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에 나타난 개더 장식의 미적 특성을 분석해봄으로써 최근 패션의 개더 장식 경향을 알아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일반적인 주름 장식과 관련된 문헌과 연구논문 등에서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으며, 시각적인 자료 수집은 패션 정보지인 collections, collezioni, 인터넷 사이트인 firstview, style.com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개더 장식이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한 2001년부터 2006년 봄까지의 파리, 밀라노 컬렉션을 중심으로 사진자료를 고찰하면서 주름의 종류 중 현대패션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개더 장식인, 셔링, 루시, 러플, 프릴을 중심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개더 장식의 개념과 기법

개더는 어원이 'gaderen', '-에 들러붙다'는 뜻의 산스크리트어인 'gadhyā'로 '한데 모으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개더란 직물의 여유분을 몇 줄의 스티치를 한 후 잡아당긴 것⁷⁾으로 '호아 잡은 주름'의 의미로 천을 여러 겹으로 겹쳐 성기게 꿰매거나 재봉틀로 실을 당겨서 잔주름을 잡은 것을 말한다. 개더는 의복 조형의 가장 오래된 테크닉의 하나로 닥트의 전신이라고 생각된다⁸⁾. 원통형의 천을 엉덩이에 맞추어 몸에 들렀을 때 허리부분에서 남는 부분을 조여서 몸에 맞도록 주름 같은 것

으로 처리했는데 이것이 바로 개더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개더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부드러움, 화사함, 활기참을 표현하며 약간의 음영효과도 있다. 개더에 의한 음영효과는 소재와 바늘땀에 큰 영향을 받는다. 개더 전체의 음영 효과를 강조하려면 바늘땀을 작게 하고, 개더의 효과를 작게 하려면 바늘땀을 크게 하면 된다. 저지나 실크, 가벼운 울 등의 경우는 가볍고 부드러운 주름이 생기며 브로케이드나 타프타, 면 등의 경우는 깊고 풍부한 주름이 생긴다⁹⁾. 조형의 수단으로 시작된 개더는 점차 장식성을 띄게 되었는데 개더에서 발전된 주름의 형태로 셔링(shirring), 루시(ruche), 러플(ruffle), 프릴(frill), 스모킹(smocking) 등이 있다¹⁰⁾. 스모킹은 셔링과 마찬가지로 곡선형 주름인 개더에서 출발하였지만 자수 스티치가 장식적으로 더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으므로 여기서는 제외시켰다.

일반적 의미로 장식이란 허식이나 걸치레 등 외형만을 거짓으로 꾸민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중국에서는 ‘정돈’, ‘정리’의 의미에서 유래한 것이다. 장식이란 용어 중 ‘ornament’는 라틴어 ‘ornare’, 즉 ‘장식한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장식물이나 장신구 또는 장식무늬를 말하는 것이다¹¹⁾. 장식은 본래 무엇인가를 치장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독립될 수 있는 행위는 아니지만 장식이 장식된 사물과 조화되어 미적 일체를 이루어 가는 동시에 그 본래의 뜻에 따라 자신의 고유의 미를 발휘하기도 한다.

장식은 외적인 형태에 내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복식에 있어서 이런 장식적 특성은 시각적 쾌감을 주는 형태적 측면, 공간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서의 심리적 측면, 부와 명예를 과시하려는 상징적 측면으로 적용되고 있다.

장식의 의미는 매우 포괄적이나 일반적으로 의복의 장식은 크게 디테일과 트리밍 장식으로 구분되며 실루엣을 옷의 외형이라 한다면 디테일은 그 안의 장식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디테일은 ‘세부, 세목, 부분’의 의미로 의상의 세부장식으로 의복을 만드는 봉제과정에서 바탕천으로 제작되어지는 장식을 말하며¹²⁾, 트리밍은 이미 만들어진 장식품 혹은 그 외의 다른 재료로 만들어 붙이는 것으로 옷을 장식할 목적으로 만들어 달거나 만들어져 있

는 장식을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곳에 붙이는 것을 말한다¹³⁾. 디테일은 성격상 크게 의복의 일부분으로서 네크라인(neckline), 칼라(collar), 슬리브(sleeve), 스커트(skirt) 등 의복의 형을 이루는 부분인 디테일(구조적 디자인)과 셔링(shirring), 프릴(frill), 핀턱(pintucks), 파이핑(piping) 등과 같은 기교적인 세부장식(장식적 디자인)으로 나눌 수 있다¹⁴⁾.

또한 장식적 디자인이란 의복의 구성상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디자인의 미적 표현을 돕기 위하여 디테일 선을 특이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장식품을 덧붙임으로 강조점을 주어 개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때 장식적 디자인은 구조적 디자인으로 인체 구조를 존중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셔링(shirring)

셔링은 원하는 만큼 개더를 모으는 방법으로, 둘이나 그 이상의 평행한 라인으로 스티치한 후 잡아당겨 장식적인 주름을 잡는 방법을 말한다. 개더에서 발전된 셔링은 가는 주름에 의한 아름다운 음영효과가 특징적이다. 셔링은 넓은 면적을 주름으로 탄력 있게 인체에 밀착되면서 동시에 장식적이다¹⁵⁾.

셔링은 의복전체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분에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주름이 풍부하게 잡히는 가볍고 얇은 소재가 적합하다. 블라우스의 가슴장식이나 수영복, 원피스 허리부분, 장갑의 손목 부분 등 몸에 밀착되면서도 활동이나 착용의 여유가 필요한 부분에 많이 쓰인다¹⁶⁾.

셔링의 방법은 원하는 간격으로 여러 줄을 재봉틀로 박은 후 밀실을 잡아당겨 개더를 만들어 입체적인 모양을 만드는 방법¹⁷⁾으로 손쉽게 다양한 형태의 셔링을 잡을 수 있어 기성복에 자주 사용된다. 또한 최근에는 직물 밑에 고무 밴드를 놓고 고무 밴드를 당기면서 봉제한 셔링의 형태가 스포츠, 캐주얼웨어나 점퍼 등에 손쉽게 사용된다. 또한 직물 사이에 끈을 삽입한 후 직물을 밀어 올려도 셔링의 형태가 생긴다¹⁸⁾.

2) 루시(ruche)

루시의 어원은 벌집을 의미하는 불어의 ‘뤼슈(ruche)’로 나무껍질을 의미하는 중세 라틴어 ‘rusca’에서 온 말이다. 패션 용어에서 루시는 트리밍으로

사용되는 플리츠나 개더 처리한 직물의 스트립(strip)을 의미하며 장식한 모습이 별집처럼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¹⁹⁾. 루시는 일반적으로 가늘고 긴 스트립(strip)형의 주름 장식을 의미하지만 셔링과 비슷하게 직물 자체에 주름을 주는 경우를 일컫기도 한다.

장식 끈의 형태의 루시는 앞가슴 장식이나 스커트 단, 소매 단 등에 붙이는 봉제 장식으로 두꺼운 코트 등의 속주머니 입구나 모피 코트의 안감 주변 등에 장식과 보강을 목적으로 사용된 장식 끈도 루시로 본다²⁰⁾.

직물 자체에 주름을 주는 경우는 셔링과 형태가 비슷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주로 네크라인, 어깨, 소매 등을 장식하면서 원하는 의복의 형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된 테크닉이다. 주름을 넣으면서 두장의 천을 붙이는 형태로 루시 처리할 직물을 바닥천보다 2배 이상 크게 하여 불규칙적으로 부풀린 주름을 만들면서 스티치로 바닥천과 고정시킨다.

3) 러플(ruffle),

러플의 어원이 '구기다'는 뜻의 'ruffelen'으로 '주름을 잡다', '오글쪼글하게 만들다'는 의미가 있다. 패션 용어로 러플은 가장자리 장식으로 사용되는 한쪽 단에 개더나 플리츠를 잡아 다른 쪽이 펴려떨어지도록 하거나 양쪽 모두 펴려거리게 한 장식을 말한다²¹⁾. 드레스, 셔츠, 블라우스의 칼라나 앞 중심단, 밑단 등에 장식적으로 사용된다. 러플은 3차원적인 자유 곡선에서 생기는 리듬감과 울동감으로 인해 부드럽우면서 생동감 있는 표현이 가능하다. 러플 장식은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체를 여러 단의 러플로 장식한 러플 스커트나 블라우스처럼 의상 전체에 사용될 수도 있다.

러플의 종류는 직선적인 직물 조각의 한 부분에 개더를 잡아 만드는 직선형 러플과 도넛 같은 원형의 형태로 재단하는 원형 러플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일반적으로 러플의 단 처리는 말아 박거나 오버록, 인터록 등 각종 장식 스티치를 하여 얇은 소재인 경우는 두 겹으로 제작하여 단 처리를 대신 하기도 한다. 이 때 끝단을 대비되는 컬러의 테이프로 배색처리하면 곡선

의 라인미가 강조되고 더욱 풍성한 느낌을 줄 수 있다.

4) 프릴(frill)

프릴(frill)이란 용어는 16세기 이후에 사용된 것으로 주로 드레스나 블라우스 등에 사용된 러플의 형태를 말한다. 프릴은 좁은 폭의 직물 한쪽 면에 개더나 플리츠를 잡아 의복의 가장자리에 붙여 하늘하늘하게 표현하는데, 주로 여성복이나 아동복의 칼라나 소매단, 밑단 등에 장식적으로 사용된다. 러플과 비슷한데, 러플보다는 폭이 좁거나 단면의 플리츠나 개더가 비교적 작은 것을 프릴이라 한다²³⁾. 일반적으로 같은 옷감을 사용하거나 재질이 같은 옷감으로 색채를 달리 하여 사용한다.

2. 개더 장식의 시대적 변천

중세 유럽의 농민복인 던들형 스커트와 블라우스 등에 사용되던 개더가 실크의 보급에 의해 장식성이 요구되면서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루이 왕조시대에는 칼라, 커프스, 소매단 등에 레이스와 같은 모양의 장식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19세기 중반 무렵에는 접힌 선 부분에 코드를 삽입한 크리세(crisse)가 되어 타프타, 오간자를 사용한 화려한 의상이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 인도에서 대량의 목면이 유입되어 실크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셔링의 사용도 줄어들었다²⁴⁾.

르네상스 시대에는 러플이 절대적이었다. 러프 칼라가 대표적인데, 초기에 넓고 깊게 파였던 네크라인이 비난을 받자 그것을 가리기 위해 슈미즈(chemise)의 프릴이나 러플 장식으로 가슴을 가리



(그림1) 이사벨라, 16세기, 서양의 복식문화, p.177.

던 것이 점차 발전하여 드레스의 앞트임이 막혀지고 러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림1>.

바로크 시대에도 러프 칼라는 유행이 계속 되었으며 다른 형태의 칼라와 함께 그 과장된 러플 역시 계속 보여진다.

또한 목둘레선을 많이 판 데콜테(decolte)²⁵ 현상이 다시 생기면서 네크라인에 레이스나 프릴을 달기도 하였다. 소매 끝에도 슈미즈에 달린 주름진 레이스를 달아 플랫칼라의 레이스와 조화를 이루었다. 남성복에는 자켓의 앞여밈부분을 장식하는 자보(jobot)²⁶가 나타났다²⁷. 러플(ruffle)은 18세기 초까지 가슴이나 소매 끝, 목 부분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특히 남성복의 소매 끝과 셔츠의 앞장식에 사용된 레이스 소재의 러플은 19세기까지 중요한 남성복의 장식요소였다.



〈그림2〉 마담 퐁파두르, 1759, 서양의복식문화, p.217.

로코코 시대는 개더 장식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많은 프릴과 러플의 개더 장식, 레이스, 리본, 꽃 등을 사용하였다<그림2>. 이 시기의 개더 장식은 활발라(falbala)²⁸<그림3>와 소매에 다는 앙가장떼(eingageantes)²⁹<그림4>, 와프 가운데 뒤에 사용된 풍부한 주름이 있었다³⁰.



〈그림3〉 활발라, 18세기, fashion, p.34.



〈그림4〉 앙가장떼, 18세기, www.marguise.de

엠파이어 스타일의 원기동형의 실루엣은 플리츠와 개더 등을 사용해서 뒷중심에 많은 여유분을 두었다³¹. 이 시대의 복식은 고전주의 영향으로 장식적이 많이 감소되어 개더 장식의 사용도 전시대에 비해 적어졌으며 그 사용방법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19세기초 고전주의 영향은 곧 사라져 스커트 폭은 다시 점차로 늘어나고 스커트와 네크라인의 장

식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중반 낭만주의 영향으로 가는 허리와 풍성한 스커트의 크리놀린 스타일이 나타났으며, 이 스타일에서 러플은 스커트를 넓히기 위해 사용되어졌다³².

19세기말에 나타난 버슬 스타일은 크리놀린 스타일의 폭 넓은 스커트의 여유분이 뒤쪽으로 집중된 것이다. 이 스타일의 복식에는 플리츠의 사용보다 러플, 프릴 등의 개더가 사용되었다³³<그림5>.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시대의 세속적인 치장은 줄어들었으나 모든 종류의 장식물은 여전히 사용되어졌다. 높아진 칼라와 부풀린 퍼프스매, 엉덩이에 꼭 맞으며 그 밑에서 넓어지는 스커트는 이 시대복식의 중요한 특징이다. 플리츠나 러플은 부분적으로 장식적인 디테일로 사용되었다³⁴.



〈그림5〉 버슬스타일, 1875서양의 복식 문화, p.304.

루시(ruche)는 18, 19세기에 드레스의 트레인, 옆면 등에 레이스나 리본, 얇은 머슬린, 실크 등의 긴 조각을 개더 잡은 끈 장식의 형태로 부착되었고, 이후에도 부분 장식의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직물 자체에 개더를 주는 형태는 19세기에 폭 넓게 어깨, 네크라인, 소매 등을 장식하여 사용되었고, 이후 1930년대 영국에서 다시 자주 사용되었다³⁵.

Ⅲ. 컬렉션에 나타난 개더 장식의 유형

개더는 디자인상에 있어서도 역시 비례, 균형, 리듬, 통일, 강조 등의 디자인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데 적절한 코디네이션에 따라 다양한 구조적, 장식적 응용에 적용된다.

본 연구는 개더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셔링, 루시, 러플, 프릴에 대하여 개더장식의 표현 형태, 개더 장식의 기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개더 장식의 표현형태

2001년도에 발표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살펴보면, <그림6>과<그림8>은 셔링의 독특한 주름에서 나온 탄력적인 재질감과 셔링을 하지 않은 부분의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드레이프와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여성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밖에 소매나 스커트에 프릴을 준 디자인도 있으나, 상의를 절개하여 옆선이나 중심에 셔링을 준 작품이 가장 많았다. 이때 까지만 해도 모던한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어 개더 장식에 의한 디자인은 현재와 같이 많지는 않다.

2002년도엔 좀 더 풍성하게 프릴을 여러 겹으로 달기 시작했으며<그림11>, <그림9>는 알렉산드라 맥퀸의 작품으로 옷 전체에 셔링과 루시, 프릴을 준 디자인이다. <그림10>는 어깨와 소매를 강조한 디자인이며, 이때부터 조금씩 소매에 셔링을 넣어 풍성하게 한 디자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2003년도엔 실루엣이 더욱 풍성해졌으며, 특히 셔링에 의해 스커트가 여러 겹으로 된 실루엣을 볼 수 있다<그림12, 13>. <그림14>는 엠마뉴엘 웅가로의 작품으로 여러 겹의 러플을 잡아 어깨를 강조한 스타일이다. <그림15>은 바디에 전체 셔링으로 앙증맞고 귀여운 스타일이며, <그림16>은 루시와 프릴로 드레스 아래쪽에 풍성한 볼륨감을 주어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2004년도부터는 로맨틱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18>은 비치는 시폰 소재로 스커트 밑단, 소매 끝단, 넥라인 등에 프릴을 주어 부드러운 여성스러움을 나타내었으며, <그림19>는 어깨, 소매, 칼라 등에

셔링과 프릴, 루시 등을 이용하여 장식한 디자인으로 화려하며 로맨틱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다. <그림20>는 스커트 밑단에 일정한 간격의 프릴을 반복적으로 잡아 루시의 형태로 재질감을 더욱 살려주었으며 귀여운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2005년도와 2006년도는 넥라인이나 칼라, 소매 등에 눈에 띄게 강조한 개더 장식들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진동이나 어깨를 강조한 디자인이 많다. <그림21>은 모스키노의 작품으로 어깨의 셔링과 루시에 의한 디자인으로 로맨틱함을 강조한 디자인이다. <그림22>은 칼라, 진동, 소매, 스커트 등 각 부분에 모두 셔링, 프릴, 러플을 잡아 부드럽고 여성스럽게 표현 하였으며, 소재 또한 레이스와의 소화로 로맨틱함을 나타내었다. <그림23>은 루시를 이용하여 일정한 간격에 의해 반복적으로 잡아 원단 자체에 독특한 주름을 완성하여 표현한 작품으로 재질감을 더욱 살려주고 있다. 특히 2006년도의 디자인들을 보면 개더장식에 비즈나 구슬, 리본 등을 덧붙여 더욱 화려해졌음을 볼 수 있다.

2. 개더 장식의 기법

의복의 구조적 디자인에서는 실루엣의 결정과 실루엣안의 각 부분의 크기나 형태의 결정이 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구조적 디자인에 따른 디테일의 기능적인 내용보다는 형태에서 개더 장식을 이용한 구조적 디자인의 종류만 살펴보고자하며 실제로 복식에 도입된 예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

넥라인(neck line)은 턱, 목, 목둘레, 어깨에 의해 만들어지는 형의 아래 가장자리를 형성하며 목의 길이와 두께 뿐 아니라 외견상의 얼굴형에 영향을 미친다. 넥라인은 일반적으로 선의 주된 방향에 의해 만들어지는 효과에 따라 분류된다. <그림20>는 스퀘어 넥라인으로, 루시장식을 하였으며, <그림17>는 라운드 넥라인에 프릴을 덧대 귀엽게 장식하였다.

칼라(collar)는 인체의 목주위의 장식 부분이며, 목은 머리와 바디를 연결하는 부위로서 인체에서

요철의 차이가 크며 의복 착장의 경계가 된다. <그림 10, 22>은 러플을 응용한 디자인으로 외곽선의 파상선을 이용하여 우아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19>는 플랫칼라에 프릴을 달아 여성스러움을 더해 주었다.

슬리브(sleeve)는 어깨로부터 팔에 걸친 연결 부분에 속하므로 팔의 운동, 굴신에 의해서 형태가 변하기 쉬운 곳이므로 디자인에 미리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활동적인 기능성과 심미적인 욕구로 인해 주름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19, 21, 23>은 어깨나 슬리브에 셔링을 주어 볼륨감을 살린 스타일이고, <그림 22>은 진동, 소매 끝에 러플로 장식하여 화려함을 나타내었다. 슬리브는 소매산이나 소매부리를 개더 장식한 디자인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스커트(skirt)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하반신을 감싸는 허리웃으로 슈트(suit), 투피스(two-piece) 등과 조합된 옷의 일부를 말하나 상·하가 연결되어 있는 원피스 드레스(one-piece dress)나 코트(coat) 등의 허리선에서 아래로 드리워진 부분을 총괄하는 경우도 있다³⁶⁾. <그림 9, 13, 16, 20, 21>은 스커트에 러플이나 프릴을 달아 울동감을 나타내었고, <그림 12>은 허리에 개더를 잡아 스커트의 볼륨감을 살린 스타일이다. <그림 23>은 루시장식을 한 디자인이다. 스커트에서는 변형 가능한 다양한 실루엣과 동작에 의한 기능을 요구하므로 개더에 활용되는 폭이 넓을 수밖에 없다.

바디(body)는 상체의 칼라 및 넥라인, 소매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그림 6, 8, 15>은 바디라인을 셔링장식을 하여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스타일이다. 이와 같이 바디에서의 개더 장식은 여성적인 이미지와 장식의 미적 효과를 나타내며 개더에 의해 편안한 기능적인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팬츠(pants), 모자(head dress) 등 개더장식은 다양하게 표현 될 수 있다.

셔링, 루시, 러플, 프릴 등의 개더 장식은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시각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용된 예가 많다. 부분적으로 놓일 때 칼라나 가슴, 스커트 밑단 등에 사용된 경우가 많다. 칼라나 가슴 등에 사용된 경우는 시선을 얼굴로 모아 얼굴과 목선을 강조하며

동시에 시선을 위로 끌어올려 키가 커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다. 밑단 부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전체적인 라인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여 여성적인 분위기가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의복의 일부분으로도 개더 장식의 표현은 가능하며, 개더 장식으로 2종류 이상이 연결되거나 합쳐진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장식을 위한 방법으로는 각종 봉제 방법, 장식 바느질, 주름기법 등에 의한 것으로 테크닉에 따른 분류이기도 한다. 이러한 테크닉은 분리 혹은 혼합될 수 있어 매우 다양하며, 또 새로운 방법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더장식이 표현된 테크닉, 즉 세부장식의 예를 찾아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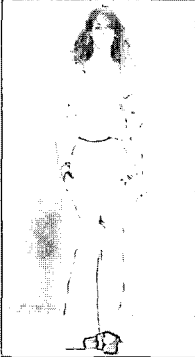
셔링은 얇고 부드러운 천을 오그려 꿰매 음영이 있는 모양을 표현하는 수예를 일컫는 양재기법으로, 개더가 조밀하게 모여진 상태를 말한다. <그림 6, 7, 8, 9, 15>은 몸의 바디에 개더를 잡아 표현된 경우이며, 수평선, 사선, 곡선의 형태의 다양한 개더장식이 나타난 경우이다.









루시는 일반적으로 가늘고 긴 스트립형의 주름장식을 의미하지만 셔링과 비슷하게 직물 자체에 주름을 주는 경우를 일컫기도 하는 것으로, <그림 9, 16>은 의복에 셔링을 주어 부착한 형태이고, <그림 17>는 장식 끈의 형태로 앞가슴을 여미는 역할을 함께한 형태이다. <그림 23>은 옷 전체에 루시장식을 사용한 디자인이다.

러플과 프릴은 옷의 솔기 부분에 레이스나 천을 개더나 플리츠를 잡아 장식하는 것으로, <그림 10, 14, 20, 21, 22>은 스커트나 상의 끝단에 장식을 한 스타일이다.

이와 같이 기능적 측면을 가진 세부장식과 더불어 장식적 측면이 강한 세부장식의 응용에 따라 다양한 개더 장식이 표현됨을 알 수 있으며, 개더 장식은 의복의 장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응용될 수 있으며, 때로는 세부장식이 그 의복을 결정짓기도 한다.

〈표1〉 컬렉션에 나타난 개더 장식의 유형

| 그림 | 출처 | 아이템 | 세부장식 | 그림 | 출처 | 아이템 | 세부장식 |
|---|---|-----|------|---|---|------------|------------------|
|  | 〈그림6〉 YvesSaint Laurent Fall,2001 (collezioni, n.83) | 바디 | 셔링 |  | 〈그림7〉 Alberta Ferretti, Fall,2001 (collezioni, n.83) | 바디 | 셔링, 프릴 |
|  | 〈그림8〉 Gianni Versace, Spring,2001 (collezioni, n.83) | 바디 | 셔링 |  | 〈그림9〉 Alexander McQueen, Fall,2002 (www.firstview) | 바디, 스커트 | 셔링, 루시, 프릴 |
|  | 〈그림10〉 Chloe, spring,2002 (www.firstview) | 칼라 | 러플 |  | 〈그림11〉 Alexander McQueen, spring,2002 (www.firstview) | 바디 | 프릴 |
|  | 〈그림12〉 Gianfranco Ferre, spring, 2003 (www.firstview) | 스커트 | 셔링 |  | 〈그림13〉 Moschino, Fall,2003 (www. firstview.com) | 스커트 | 셔링, 러플, 프릴 |

| | | | | | | | |
|---|---|---------------------|------------------|---|---|--------------|-------------------------|
|  | <p>〈그림14〉 Emanuel Ungaro, Spring, 2003 (www.style.com)</p> | 네크라인 스커트 | 러플 |  | <p>〈그림15〉 Valentino, spring, 2004 (www.style.com)</p> | 바디 | 셔링 |
|  | <p>〈그림16〉 Antonio Berard, Fall, 2004 (www.firstview)</p> | 스커트 | 셔링, 루시 |  | <p>〈그림17〉 Moschino, Fall, 2004 (collections, Milan)</p> | 네크라인, 스커트 | 루시, 러플 |
|  | <p>〈그림18〉 Alexander McQueen, spring, 2005 (www.firstview)</p> | 네크라인, 소매, 스커트 | 러플, 프릴 |  | <p>〈그림19〉 Valentino spring, 2005 (www.style.com)</p> | 칼라, 슬리브 | 루시, 프릴 |
|  | <p>〈그림20〉 Anna Sui, spring, 2005 (collections, New York)</p> | 네크라인, 스커트 | 루시, 프릴 |  | <p>〈그림21〉 Moschino, spring, 2006 (collections, Milan)</p> | 슬리브, 스커트 | 셔링, 루시, 프릴, 러플 |
|  | <p>〈그림22〉 Valentino spring, 2006 (www.style.com)</p> | 칼라, 슬리브 | 셔링, 프릴, 러플 |  | <p>〈그림23〉 Chloe, spring, 2006 (collections, Milan)</p> | 슬리브, 스커트 | 셔링, 루시 |

IV. 현대 패션에 나타난 개더 장식의 미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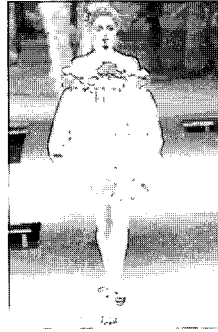
1. 장식성

리포베스키(Lipovetsky)는 장식과 액세서리와 같이 복식의 세세한 부분들의 변화가 진정으로 패션을 특정 짓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의 취미와 개성이 표현된다고 언급하였다³⁷⁾. 장식요소는 디테일 선의 특이한 변화를 통해 미적 표현을 극대화하고 시각적인 흥미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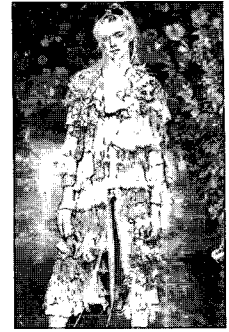
넥라인은 목선까지 올라오거나 가슴이 보이도록 혹은 어깨가 드러나도록 파이기도 하고 라운드, 보트, 스퀘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넥라인에 셔링을 잡아 봉재하거나 끈으로 잡아당겨 앞에서 묶는 형태를 취하는 방식은 시대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중요한 장식요소이다. 다만 현대에 와서 셔링과 레이스 트리밍을 동시에 함께 활용하거나, 셔링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변화된 점이다. 이 경우 셔링이나 레이스 주목성을 위해 다른 색상을 사용하거나 강한 명도차이를 주던 예전의 방식과는 달리 의복의 몸판과 같은 소재와 컬러를 활용함으로써 물결과 같은 곡선미와 풍성함을 강조하여 여성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그림24>는 개더 장식과 색채, 소재 모든 면에서 우아하고 화려한 장식성이 돋보이는 크리스티앙 라크루아의 작품으로, 셔링이 잡힌 연한 노랑색의 원피스에 리본장식 등으로 된 화려한 의상이다. 전체적인 러플과 셔링을 모티브로 한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의 작품<그림25>은 무엇보다도 환상적이며 장식적인 표현을 잘 나타내었으며 입체적으로 덧붙여진 러플은 로맨틱함을 더욱 잘 나타내주고 있다.

현대 로맨틱시즘 복식의 장식성은 다양한 재질과 역사주의적인 복식을 모방한 디테일 및 트리밍의 기법 등에 잘 나타나 있다. 현대복식에 보여지는 다양한 디테일과 트리밍은 복식에 환상적이고 로맨틱 느낌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24> Christian Lacroix, spring, 2006 (collections, Milan)



<그림25> Dolce & Gabbana, spring, 2004 (collections, Milan)

2. 관능성

‘여성은 수동적인 노출증의 경향이 숨겨져 있어서 복식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표출된다. 따라서 여성의 패션은 여성 신체 부위 중 특정 부분의 선택적인 노출, 은폐, 강조를 통하여 남성의 시선을 끌려는 유혹의 원칙에 의해 조절³⁸⁾’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복식에서의 관능성은 성적 매력을 강조하기 위해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장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섹시한 이미지를 표현해 왔다. 특히 여성복은 세련미와 정교한 기법을 갖춘 화려한 형태의 옷으로 다양하게 변해왔다.

각 시대마다 인간은 어깨를 드러내거나 가슴, 힙, 허리, 다리 등을 노출시킴으로써 관능성을 표현하는데, 과거 복식에서 나타내던 은근하고 암시적인 에로티시즘이 오늘날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노출로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넥라인을 깊게 파서 가슴부위를 장식해 시선을 끌게 하거나 인체의 선을 표현하는 관능적인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림16>은 가슴선을 깊게 파고 프릴과 리본 장식으로 시선을 끌며 관능미를 나타내었으며, <그림26>은 프린세스 라인 선을 기준으로 등분하여 옆선에 셔링을 잡아 인체의 선을 강조한 관능적인 스타일이다.

개더 장식은 관능성의 표현양식인 노출과 연관하여 더 한층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며, 간접 노출인 비치는 소재와 혼용되어 개더 장식의 표현영역을 폭 넓게 제시하고 있다.



〈그림26〉 Rocco Barocco, full, 2005 (www. firstview.com)



〈그림27〉 Dolce & Gabbana, full, 2004 (www. firstview.com)

3. 역사성

패션은 역사라는 외적 조형성을 차용해 의복이라는 내적 미적 가치를 표출하며, 의복에서의 역사의 의미는 단순히 외적으로 표현되는 시대적 양식을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 문화적 배경과 어울려 의복이라는 조형요소로의 구현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³⁹⁾.

현대패션에 표현되고 있는 복고는 시대적 양식의 융합으로 한 스타일 안에 여러 시대가 동시에 재현되며 현대적인 방향성을 띄고 등장하고 과거적 요소는 단순히 역사적 내용의 차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의 차용을 특징으로 하여 과거적 요소들을 인용, 재인용, 은유, 혼합 등의 방법을 통해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하여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⁴⁰⁾. 패션이란 시대 변화에 따라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어떤 한 시대의 패션이 완전히 그대로 재현되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기호나 개성은 더욱 다양화되고 자유로워짐에 따라 소비자의 복합 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당시의 취향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해석되어진다.

〈그림28〉은 칼라에 셔링을 주어 소매까지 연결시킨 스타일로 바로크 시대의 칼라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29〉는 허리를 셔링장식으로 풍성하게 하고 가슴에서부터 시작된 리본은 불규칙한 간격으로 변화를 주어 점점 크게 장식되어 화려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나타낸 로코코 스타일의 크리스찬 라크루아의 작품이다.

현대의 개더 장식은 환상적 색과 조식을 가진 다

양한 재질과 역사주의적 복식을 모방한 개더 장식에서 잘 나타나 있으며, 과거에서 차용된 장식적인 기법과 발전된 새로운 기술과 재료들이 결합되어 과거 복식과는 또 다른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림28〉 Chloe, spring, 2006 (collections, Milan)



〈그림29〉 Christian Lacroix, Fall, 2005 (style. com)

4. 율동성

개더에 의해 잡혀진 셔링, 루시, 러플, 프릴 등은 곡선으로 조형성의 기초로 한다. 이러한 개더는 곡선·파상선으로 표출되며, 이것은 디자인의 원리에서 율동에 적용된다.

율동은 조직화된 운동에 대한 느낌이며, 매끄럽게 또는 강력하게 형성될 수 있으며, 방향성을 갖는다. 또한 규칙적·불규칙적인 리듬감을 주어 보는 사람에게 즐겁고 경쾌한 느낌을 제공한다.

율동은 반복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각적 통일성을 주는 원리로서 반복은 거의 모든 디자인에서 보여진다.

율동은 원래 디자인의 변화와 흥미를 더해주는 것으로, 개더에 의한 율동은 <그림12, 14, 21>처럼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30>는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입체적인 러플장식의 반복으로 율동미를 보여주고 있다.

개더장식에 의한 가장자리의 파상선은 요동적이고 생동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외관상 및 실제상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V. 결론

복식은 시대의 미적 기준을 바탕으로 그 시대 특유의 형태를 창조하고 해당 시대의 정신, 사상, 정서 뿐 만 아니라 미적 가치를 표출한다. 복식의 구성요소인 개더장식이 갖는 특성은 실용적 기능성과 더불어 새로운 조형적 가치로서,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여러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 다양한 기법으로 응용되어 나타남으로써 그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개더 장식을 그 기원과 종류를 고찰하고, 개더 장식을 응용한 디자인을 살펴봄으로써 개더 장식의 유형과 미적 특성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개더 장식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1년도에 발표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살펴보면, 소매나 스커트에 프릴을 준 디자인도 있으나, 상의를 절개하여 옆선이나 중심에 서링을 준 작품이 가장 많았다. 이때 까지만 해도 모던한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어 개더 장식에 의한 디자인은 현재와 같이 많지는 않다.

2002년도엔 좀 더 풍성하게 프릴을 여러 겹으로 달기 시작했으며, 소매에 서링을 넣어 풍성하게 한 디자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2003년도엔 실루엣이 더욱 풍성해졌으며, 특히 서링에 의해 스커트가 여러 겹으로 된 실루엣을 볼 수 있다.

2004년도는 바디에 전체 서링으로 앙증맞고 귀여운 분위기가 주류를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네크라임이나 칼라, 소매 등에 눈에 띄게 강조한 개더 장식들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진동이나 어깨를 강조한 디자인이 많다.

또한 세부 장식은 초기엔 서링의 사용이 많았지만 점차 러플이나 프릴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최근에 와서는 개더 장식을 응용한 디자인이 눈에 띄게 많아졌으며, 아이템의 모든 부분의 사용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더 장식의 유형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개더 장식의 미적 특성을 장식성, 관능성, 역사성, 율동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장식성으로, 과거 복식과 다른 점은 서링과 레이스 트리밍을 동시에 함께 활용하거나, 서링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변화된 점이다. 이 경우 서링이나 레이스 주목성을 위해 다른 색상을 사용하거나 강한 명도차이를 주던 예전의 방식과는 달리 의복의 몸판과 같은 소재와 컬러를 활용함으로써 물결과 같은 곡선미와 풍성함을 강조하여 여성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둘째, 관능성으로, 개더 장식은 표현양식인 노출과 연관하여 더 한층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며, 간접 노출인 비치는 소재와 혼용되어 개더 장식의 표현영역을 폭 넓게 제시하고 있다. 미에 대한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하며 특히 여성복은 세련미와 정교한 기법을 갖춘 화려한 형태의 옷으로 다양하게 변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네크라임을 깊게 파서 가슴부위를 장식해 시선을 끌게 하거나 인체의 선을 표현하는 관능적인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개더 장식을 이용해 더욱 여성적인 에로틱함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역사성으로, 현대의 개더 장식은 환상적 색과 조직을 가진 다양한 재질과 역사주의적 복식을 모방한 개더 장식에서 잘 나타나 있으며, 과거에서 차용된 장식적인 기법과 발전된 새로운 기술과 재료들이 결합되어 과거 복식과는 또 다른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넷째, 율동성으로, 개더 장식에 의한 가장자리의 파상선은 요동적이고 생동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외관상 및 실제상의 움직임을 나타낸 디자인이 급격히 늘고 있다. 신체위에 입혀짐으로써 평면상에서 단조로운 반복이 3차원적인 신체의 운동감에 의해 새로운 형태로 표현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개더 장식의 미적 특성은 장식성, 관능성, 역사성, 율동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미적 특성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개더 장식은 여성스럽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며, 시선을 사로잡고 개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심리적 자극을 준다. 특히 입체적인 표현은 그 위치나 방법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며 시각적으로도 강한 자극을 연출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디자인이 될 수 있다. 장식효과가 입체적인

경우 돌출되거나 움푹 파여 있어 화면 전체에 지루하지 않은 시각적, 촉각적 쾌감을 주며 색다르고 다양한 전환으로 감각을 즐겁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개더 장식의 표현이나 의미가 매우 다양하므로 단순한 세부장식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또한, 현대에서 주름을 새롭게 표현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은 색다른 구조형태를 이용하여 개더 장식의 창조적인 가능성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복식에서 개더 장식의 창조적인 영역의 무한함과 복식조형으로서의 개더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복식디자인의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개더 장식은 구조적으로 실용과 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독특한 디테일로 조형적 가치가 부각되어지며 개더 장식 개발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김민자 (1993). 인간성 회복을 위한 21세기 의생활 문화. 서울: 삼성문화 18, pp.22-25.
- 2) 윤자현 (2000). 에로티시즘의 표현방법과 표현 수준에 따른 복식의 이미지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 3) 권은영 (2004). 현대 텍스타일 주름 표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박희선 (2005). 주름을 이용한 텍스타일 제품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이현숙 (1999). 현대패션에 나타난 부조적 조형미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이희남 (1995). 현대패션에 표현된 Backward Styles. 상지대학교 논문집 16, pp.325-346.
- 7) 服裝文化協會 (1976). 服裝大百科事典: 上卷. 東京: 文化出版局, p.219.
- 8) 데폴페: 목둘레선이 깊게 파여 어깨가 드러나는 네크라인.
- 9) 자보: 드레스나 블라우스의 앞부분에 부착되는 러플.
- 10) 정홍숙 (2003). 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p.211-212.
- 11) 활발라: 형깊이나 레이스로 주름잡아 만든 트리밍.
- 12) 앙가장페: 소매에 다는 레이스, 러플이나 리본 장식.
- 13) 정홍숙 (2003). Op. cit., pp.243-244.
- 14) Natalie, R. (1984). *Ginsburg, Madeleine. Four hundred years of fashion*. London: V&A Publications, p.128.
- 15) 블랑쉬 페인, 이종남 역 (1965). 복식의 역사. 서울: 까치사, pp.570-593.
- 16) Ibid., pp.598-601.
- 17) Ibid., pp.608-613.
- 18) Margo, S. & Mary, S. (1989). *Textile art: Multicultural traditions*. London: A&C Black, p.101.
- 19) Wolfhart, H. & Kontad, L., 김진수 역 (1998). 미학사전. 서울: 예경, p.300.
- 20) 공미란, 안인숙 공저 (2003). 패션디자인. 서울: 예학사, p.57.
- 21) 유송옥 (1995). 복식의장학. 서울: 수학사, pp.85-116.
- 22) 이호정 (1997). 복식디자인: 기성복 디자인에의 어프로치. 서울: 교학연구사, p.40.
- 23) Calasibetta, Charlotte Mankey (1998).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Second edition*. New York: Fairchild books, p.237.
- 24) 服裝文化協會 (1976). 服裝大百科事典: 上卷. Op. cit., p.219.
- 25) Ireland, Patrick John (1987). *Encyclopeda of fashion details*. London: Prentice-Hall, Inc., p.218.
- 26) 服裝文化協會 (1976). 服裝大百科事典: 上卷. Op. cit., p.219.
- 27) Ireland, Patrick John (1987). Op. cit., p.218.
- 28) 조규화 (1995). 복식사전. 서울: 경춘사, p.272.
- 29) Calasibetta, Charlotte Mankey (1998). Op. cit., p.490.
- 30) Colette, W. (1996). *The art of manipulating fabric*. Wisconsin: Krause Pub., p.96.
- 31) 조규화 (1995). Op. cit., p.119.
- 32) 文化出版局, 文化女子大學教科書部 共 (2000).

- ファッション辞典: Fashion dictionary. 東京: 文化出版局, p.604.
- 33) 服裝文化協會 (1976). 服裝大百科事典: 下卷. 東京: 文化出版局, p.490.
- 34) Tate, Sharon Lee (1984). *Inside fashion design: Second edition*. New York: Harper & Row, p.147.
- 35) 服裝文化協會 (1976). 服裝大百科事典: 下卷. Op. cit., p.248.
- 36) 이호정 (1999). *패션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 p.59.
- 37) Lipovetsky, Gilles, 이득재 역 (1999). *패션의 재국*. 서울: 문예출판사, p.35.
- 38) 채금석 (1995).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pp. 345-347.
- 39)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Ⅱ): 반미학과 열린 패션을 중심으로. *복식* 38, p.376.
- 40) 이봉덕 (2001).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5.